

순천, 농산어촌 유학생 정책 지원

행안부 지방소멸기금사업 선정 총 15억원 확보 인구 감소 대응 거주 주택·커뮤니티 공간 제공

지난해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된 순천시가 농산어촌 유학을 통해 해법을 찾는다.

7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안전부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에 공모해 농산어촌 유학마을을 조성 사업이 확정돼, 광역지원기금 9억 원을 포함해 총 15억 원의 농산어촌 유학생 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행안부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에 전남에서 16개 군이 인구감소 지정 지역으로 선정됐다. 순천시는 인구감소 지정 지역은 아니지만 시 단위에서 유일하게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에 선정됐다.

이는 순천시의 교육 특화와 귀농·귀촌 유입, 농촌 활성화 정책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농촌으로 분산하기 위한 대안과 현실성 있는 투자 계획을 적극 제시해 얻은 성과로 파악된다.

이번에 선정된 유학마을 조성 사업은 전남 외 도시 학생들이 생태, 환경체험을 위해 전남으로 전학와서 생활하는 유학생과 학부모들이 거주하는 주택과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해 지역에 정착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순천시는 10동 규모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고 귀농·귀촌, 교육, 관광, 휴양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주민소통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해 창의적인 유학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순천시는 월등초, 낙안초, 승주초 3개 학교에서 유학생을 모집했으며 학생과 학부모 304명의 인구 유입 효과가 있었다.

순천시는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3개 학교 외에도 농촌 지역의 입지 조건을 검토해 지역을 선정하고 수도권 희망 유학생과 가족을 적극 유입시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전남은 전국에서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

고,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가장 낮은 지역으로 22곳 중 18곳이 인구소멸 위기 지역이다. 순천시도 도·농 통합지역으로서 도시와 농촌 간 인구, 경제, 문화 격차가 심하고 10년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작년에 감소하기 시작했다. 2년 전에는 소멸 저위험 단계였으나 올해는 소멸 주의 단계로 분류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기금 90% 이상 인구감소 지정 지역에 배분하고 기초지원기금은 100% 인구감소 지역이나 관심 지역에 배분한다. 순천시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 당시 저위험 단계로 기초지원기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순천시는 인구감소지역 위주로 설계된 이 기금을 도시 농촌 간 인구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도농통합 지역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 아이들 웃음소리로 마을에 활력을 되찾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분산되는 인구이동 흐름의 큰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박경식 기자

보성 율포솔밭해수욕장 ‘활기’

포스트코로나 관광정책 결실

보성군의 관광 경제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율포해수욕장센터 방문객이 급증하며, 남해안 해양레저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율포솔밭해수욕장 주변이 활기를 띠고 있다.

보성군이 율포해수욕장센터 방문객이 5월 말 기준으로 4만 명을 달성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의 체험객이 찾았다고 7일 밝혔다.

율포솔밭해수욕장을 바라보며 해수 노천욕을 즐길 수 있는 율포해수욕장센터는 지하 120m 암반층에서 끌어올린 해수와 보성 녹차를 이용한 힐링센터다.

지상 3층 연 면적 4,424㎡ 규모로 지난 2018년 9월 문을 열었다. 1층에는 카페와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아트홀, 차 연관 제품과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특산물 판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2층은 남녀 해수욕탕이 있어 670명 수용이 가능하다. 3층은 야외 노천탕과 테라피를 위한 아쿠아토니풀 등 다양한 스파 시설을 갖추고 있다. 황옥방, 스킨테라피, 황

토방 등 찜질도 즐길 수 있다.

현재 보성군은 보성차밭을 중심으로 한국차박물관, 북재, 다향아트밸리를 통해 다양한 식음료와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차박물관에서는 차 만들기과 BS삼총사 녹차쿠키 만들기 프로그램, 다향아트밸리에서는 녹차삼합, 쪽파김치 만들기, 쪽육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최신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보성에(慶) 물들다(茶)’라는 새로운 관광 상품도 선보이고 있다. 보성에 물들다는 차밭 피크닉과 율포 해변에서 캠프를 즐길 수 있는 상품이다.

보성군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한 다양한 관광정책이 거리 두기 완화와 맞물리며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의 관광자원을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관광객들의 니즈를 파악해 프로그램 운영 등에 반영해 나가고 많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백종두 기자



구례군 문척면 섬진강변 단데들에서 꿀수박을 수확한 농민이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다. /구례군 제공

구례, 고당도 꿀수박 본격 출하

구례군 문척면 섬진강변 단데들에서 재배하는 꿀수박이 본격 출하를 시작했다.

맑고 깨끗한 섬진강 정정지역에서 재배되는 구례수박은 5월 중순부터 수확하기 시작해 6월 말까지 생산된다.

구례군은 게르마늄 성분이 많은 변성암으로 되어 있는 지질학적 특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토양 속 게르마늄 함량이 5배 가량 높고 청정해 건강하고 깨끗한 전국 최고의 수박생산지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구례에서는 친환경재배 13농가를 포함한 40여 농가가 20ha의 시설하우스에서 연간 1,000톤 18억 원의 수박을 생산하고 있다.

한 농가당 평균 4,50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친환경농법으로 생산한 수박은 각 지역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되고 있다.

최근에는 일반 수박과는 다르게 줄무늬가 없어 검정색을 띠며 껍질이 얇고 향과 당도가 높은 흑수박을 도입해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있다.

구례 문척면은 꿀수박의 맛을 알리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구례체험여행협동조합센터에서 마을주민 주도로 문척수박 알리기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구례=손석봉 기자

여수, ‘도서관으로의 초대’ 프로그램

4개관 맞춤형 투어

여수시립도서관이 오는 16일부터 8월 18일 까지 맞춤형 도서관 투어 프로그램 ‘도서관으로의 초대’를 운영한다.

도서관으로의 초대는 주제별로 특화된 시립도서관 4개관(이순신, 현암, 환경, 울촌)을 견학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순신, 현암, 환경도서관을 견학하는 A코스 와 이순신, 울촌도서관을 견학하는 B코스로나 된다. 각각의 코스는 다시 초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코스와 중학생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코스로 나눠 진행된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총 10회 운영되며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여수=곽재영 기자

광양, 도시숲관리단 안전교육

광양시가 최근 도시숲관리단과 산림복지일자리 기간제 근로자 9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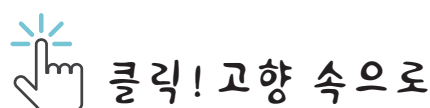
이날 교육은 안전사고 예방 전문 교육기관인 임업기능인훈련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근로자의 산업안전, 사고예방 교육을 비롯해 근로자의 건강증진 체조, 벌 쏘임 대처,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진행했다.

특히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예초기, 기계톱 등의 도구 사용법 숙지와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

는데 중점을 뒀으며, 사업장 내에 상존하는 각종 안전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분위기 조성을 강조했다.

김재복 녹지과장은 “도시숲관리단 업무가 도로변 등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만큼 건강관리와 상시 안전에 더욱 유의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근로자 안전을 위해 작업시간 이전 월별 현장 순회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폭염기 이전에 임업기능인훈련원 전문강사를 다시 초빙해 여름철 안전 예방과 작업도구 등 안전사용 요령에 대해 중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권동현 기자



보성 읍어면 복지기동대, 주거개선 봉사

보성군 읍어면 복지기동대가 최근 주거취약가구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읍어면사무소 직원 등이 함께했으며, 참가자들은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주거취약가구 3세대의 도배·장판 교체와 대청소에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보성소방서와 협조해 소방 및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화재감지기 설치해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김명섭 복지기동대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119를 찾는 것처럼 불편 사항이 있으면 복지기동대를 찾을 수 있도록 더 가까이에서 봉사하고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보성=백종두 기자



순천 풍덕동, 무지개아파트 경로당 개소

순천시 풍덕동이 허석 순천시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마을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지개아파트 경로당 개소식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무지개아파트 경로당은 그동안 미등록 경로당으로 운영돼왔으며, 공간이 협소해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많았다. 이에 순천시는 1억6,800

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상 1층, 연면적 46.5㎡ 규모로 지난달에 재건축했다.

주학식 노인회장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행복한 여가생활을 즐기고 누구나 편하게 쉴 수 있는 경로당이 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천=박경식 기자



곡성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 힐링캠프

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최근 센터에 등록된 회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힐링캠프를 운영했다고 7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뜸 치료, 약죽, 온열 테라피 등 통합 의료 서비스와 아로마 테라피, 소금 찜질, 경옥환 만들기 등 힐링 체험을 통해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한 참가자는 “오랜만에 일상을 벗어나 삶의 여유를 느꼈다. 기회가 되면 다음에도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이번 캠프가 신체적,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한정길 기자